

국민석유기업, 3월21일 공식 출범

창립발기인대회 열어 법인설립 공식 선언 ... 5월부터 주식 공모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기업이 3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석유기업은 발기인 1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각 지역준비위원회공동대표와 준비위원 중 창립분담금을 낸 발기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4월 초 법인 등록절차를 마친 후 5월 중순 일반인 주식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석유기업은 2012년 6월 준비위원회를 꾸린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인 1주 갖기 약정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약정액 1200억원을 모았다.

국민석유기업은 이태복 전 복지부장을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 이우재 전 마사회장, 이팔호 전 경찰청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윤선 평택대 교수, 박상병 박사 등은 사외이사를 맡았다.

국민석유기업은 정유4사 독점구조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공공재 성격을 지닌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국민석유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기존 정유기업들도 석유제품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21>